

우육일일시장뉴스 (2026.10.25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중국 / 일본 / 미국 / 호주 / 뉴질랜드 / 남미(브라질·우루과이·파라과이·아르헨티나)

오늘의 핵심

- 1. 미국 Choice 컷아웃은 10/23 US\$365.79/cwt(-3.68)로 사흘째 내렸고, Select는 352.69달러(+2.28)로 반등했습니다. 12월물 생우는 231.125달러로 보합, 11월물 비육우는 348.125달러(+1.20)로 올랐습니다. (USDA AMS, Sarnia News Today)
- 2. 10/23 미국 수입우 시장에서 호주·뉴질랜드산 90CL 카우는 FOB US\$335~342/cwt, 95CL은 355~362달러로 전주보다 대체로 소폭~큰 폭 올랐습니다. 호주·뉴질랜드산 수요가 강했고 남미산도 강보합이었습니다. (USDA AMS 수입우 거래)
- 3. 호주는 퀸즐랜드·뉴사우스웨일스 북부 비로 재입식 수요가 몰려 동부 어린 소 지표(EYCI)가 1,000¢/kg을 넘었고, 중량 거세우 지표는 kg당 A\$4.77, 가공용 암소는 4달러를 넘어 모두 사상 최고입니다. 일본의 1~8월 호주산 소고기 수입은 9% 늘어 점유율 51%가 됐습니다. (ABC News, 세계일보(World Journal))
- 4. 중국 소고기 도매가는 10/23 72.60위안/kg으로 보합이었습니다. 브라질 비육우(Cepea)는 10/22 R\$380.55(+0.04%)로 10월 누적 4.46% 올랐습니다. (농업농촌부, Cepea)
- 5. USDA 10월 Cattle on Feed에서 10/1 비육우 재고는 1,137만 두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9월 입식은 12%, 출하는 7% 줄었습니다. 현물 생우는 남부 228달러 호가가 거부됐고 텍사스에서 230달러에 일부 거래됐습니다. (USDA NASS, The Ag Center)

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미국 수입우 FOB/CIF, USDA 컷아웃, 산지 경매가, 수출 단가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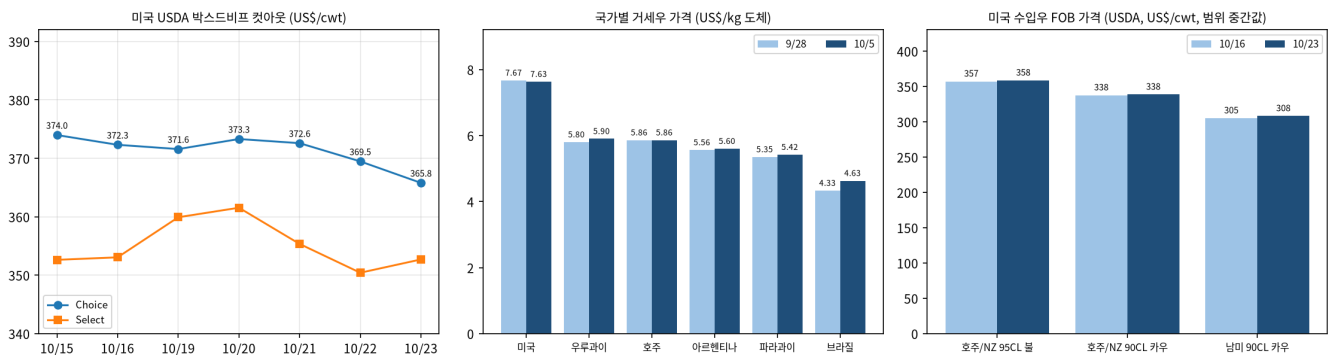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미국	USDA Choice 600-900 컷아웃 (10/23)	US\$365.79/cwt	전일 -3.68	USDA AMS
미국	USDA Select 600-900 컷아웃 (10/23)	US\$352.69/cwt	전일 +2.28	USDA AMS
미국	Choice 등심(Rib)/목심 (Chuck) 프라이멀 (10/23)	US\$672.57 / 325.90/cwt	10/22 673.82 / 330.57	USDA AMS
미국	CME 12월물 생우 (10/23 증가)	US\$231.125/cwt	보합	Sarnia News Today
미국	CME 11월물 비육우 (10/23 증가)	US\$348.125/cwt	+1.20	Sarnia News Today
미국	패커 마진 추정 (10/16)	두당 US\$70.90	전일 99.65, 1주 전 72.55	Agriculture.com(Reuters)
미국	생우 현물 (10/23)	텍사스 생체 US\$230/cwt 일부 거래	남부 228·북부 도체 358 호가 거부	The Ag Center
미국	비육우 재고 10/1 (9월 입식)	1,137만 두 (177.7만 두)	전년 비슷 (입식 -12%)	USDA NASS
미국	CME 비육우 지수 (10/15)	US\$343.54/cwt	+0.90	Barchart(Yahoo Finance)
미국		US\$225/cwt	2026년 평균 237.56	USDA ERS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	USDA ERS 4분기 비육 거세우 가격 전망 (10/16)			
중국	소고기 도매 평균 (10/23)	72.60 CNY/kg	전일 보합	농업농촌부
중국	소고기 도매 주간 평균 (10/9~15)	72.62 CNY/kg	전주 -0.3%, 전년 +10.0%	Foodmate(농업농촌부 주간)
호주/NZ	미국 수입 90CL 카우 FOB (10/23)	US\$335~342/cwt	10/16 335~340, 대체로 상승	USDA AMS 수입우 거래
호주/NZ	미국 수입 95CL 불·카우 FOB (10/23)	US\$355~362/cwt	10/16 350~364	USDA AMS 수입우 거래
호주/NZ	미국 수입 85CL 트림·CFM FOB (10/23)	US\$305~308/cwt	10/16 305~307	USDA AMS 수입우 거래
호주	미국 수입 90CL 카우 CIF (9/25, MLA 최신 공개분)	US\$320~325/cwt	전주 +5, 전년 -13	MLA 주간 리포트
남미	미국 수입 90CL 카우 / 95CL 불 (10/23)	US\$306~310 / 319~325/cwt	10/16 90CL 298~312, 강 보합	USDA AMS 수입우 거래
한국	1~8월 소고기 수입 (호주 / 미국)	187,062톤 / 138,366톤	점유율 54.5% / 40.3%	조선비즈
호주	9월 소고기 수출 (전체 / 한국향)	132,146톤 / 17,927톤	전년 -5% / -16%	Farmonline
호주	2026년 소고기 생산 / 수출 전망 (MLA, 10/15)	300만 톤 이상 / 약 240만 톤	생산 사상 최고	MLA
호주	다윈 수출용 비육 거세우 (10월 중순)	약 450 A¢/kg 생체	일부 460	Beef Central
호주	달비 경매 재입식 경량 거세우 (10/21)	평균 606~607 A¢/kg 생체	+40~60¢	Beef Central
호주	동부 어린 소 지표 EYCI (10/23 주간)	1,000 A¢/kg 이상	사상 최고 경신	ABC News
호주	전국 중량 거세우 지표 (10/23 주간)	A\$4.77/kg 생체	사상 최고	ABC News
호주	재입식 1년생 암소 지표 (10/23 주간)	468 A¢/kg 생체	+2.5%	MLA 주간 시황
호주	가공용 암소 지표 (10/23 주간)	400 A¢/kg 생체 돌파	사상 처음 400¢ 돌파	MLA 주간 시황
뉴질랜드	P2 스티어 스케줄 북섬 (10/12)	985 NZ¢/kg	4주 전 동일, 1년 전 890	interest.co.nz
뉴질랜드	P2 스티어 스케줄 남섬 (10/12)	971 NZ¢/kg	4주 전 965, 1년 전 883	interest.co.nz
브라질	Cepea 비육우 10월 평균 (10/21까지)	R\$376.33/아로바	9월 대비 +6.56%	Globo Rural
브라질	Cepea 비육우 (10/22)	R\$380.55/아로바	전일 +0.04%, 10월 누적 +4.46%	Cepea
브라질	대중국 수출용 비육우 (Boi-China, SP) (10/13)	R\$385.00/아로바	일반 대비 +R\$5	Compre Rural
브라질	10월 1~7영업일 소고기 수출 단가	US\$6,163/톤	전년 10월 대비 +11.3%	Notícias Agrícolas(Secex)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브라질	거세우 평균 (10/5)	US\$4.63/kg	+6.9%	World Beef Report
우루과이	거세우 (10/16)	US\$5.80~5.95/kg, 일부 6.00	강세, 암소 5.50~5.65	El Observador
우루과이	소고기 수출 단가 (최근 30일 / 최근 1주)	US\$5,943 / 5,700/톤	6,000달러 안팎에서 안정	El Observador
아르헨티나	거세우 (10/5)	US\$5.60/kg	+0.7%	World Beef Report
파라과이	거세우 (10/5)	US\$5.42/kg	+1.3%	World Beef Report
미국→한국	8월 대한민국 수출 단가 (US\$2.01억 / 19,195톤)	약 US\$10.47/kg	물량 +14%, 금액 +20%	Provisioner(USMEF)

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우육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USDA AMS, World Beef Report, USDA AMS 수입우 거래 (수입우는 10/16·10/23 FOB 범위 중간값, 국가별 거세우는 10/5가 최신)

국가별 주요 뉴스

중국

- 10/23 소고기 도매 평균은 72.60위안/kg으로 보합, 양고기는 67.74위안(+1.1%)으로 반등했습니다. [농업농촌부](#)
- 중국의 3분기 육류·부산물 수입은 약 133만 톤으로 줄었고(약 -15%), 소고기 세이프가드 관세 영향으로 9월 수입도 더 둔화했습니다. [Food Market](#)
- 10/22 소고기 도매 평균은 72.62위안/kg(-0.3%), 양고기는 67.00위안(-0.5%)으로 사흘째 함께 내렸습니다. [농업농촌부](#)
- 농업농촌부 주간(10/9~15) 소고기 도매 평균은 72.62위안/kg으로 전주보다 0.3% 내렸지만 전년보다 10.0% 높습니다. [Foodmate\(농업농촌부 주간\)](#)
- USDA는 2026년 세계 소고기 생산이 3% 넘게 줄어 6,02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[Logos Press](#)
- 10/16 소고기 도매 평균은 73.61위안/kg으로 0.7% 올라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. 양고기는 67.82위안(+0.2%)입니다. [NetEase\(농업농촌부\)](#)

일본

- 일본의 1~8월 호주산 소고기 수입은 16만 9,743톤으로 9% 늘어 점유율이 51%(5년 전 41%)가 됐고, 미국산은 11만 9,944톤으로 5년 전보다 20% 넘게 줄었습니다. 농림수산물성 조사에서 수입 소고기 가격은 올해 14% 올랐습니다. [세계일보\(World Journal\)](#)
- 호주산 9월 대일본 수출은 27,107톤으로 19% 늘었고, 올해 누적 점유율은 16.8%입니다. ([Farmonline](#))

3. 미국산 8월 대일본 수출은 금액 1.4억 달러(+2%), 물량 -13%였습니다. ([Oklahoma Farm Report](#))
4. 아르헨티나산 소고기의 일본 수출 위생요건이 합의돼, 남미산 경쟁이 커질 전망입니다. ([Buenos Aires Times](#))
5. FAS는 2027년 일본 소고기 수입을 70.5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. ([USDA FAS](#))
6. 일본에서는 엔저와 미국 가뭄으로 수입 소고기·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닭고기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. 최근 5년간 소고기 소비는 11% 줄고 닭고기는 6% 늘었으며, 육류 소비의 47%를 수입에 의존합니다. [아시아경제](#)

미국

1. 트럼프 대통령의 3개월 다짐육 수입 확대 계획은 절반이 지났지만 실제 추가 수입은 적고 가격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. [Arkansas Democrat-Gazette](#)
2. 10월 Cattle on Feed: 10/1 비육우 재고 1,137만 두(전년 대비 약 100%), 9월 입식 177.7만 두(-12%), 출하 152.4만 두(-7%)입니다. 입식 감소는 내년 상반기 도축 물량 축소를 뜻합니다. [USDA NASS](#), [DTN](#)
3. 10/23 Choice 커틀아웃은 365.79달러(-3.68)로 사흘째 내렸고 Select는 352.69달러(+2.28)였습니다. Choice 목심(Chuck)은 325.90달러로 약했습니다. [USDA AMS](#)
4. 현물 생우는 남부 228달러, 북부 도체 358달러 호가가 거부됐고, 텍사스에서 230달러에 일부 거래됐습니다. 12월물 생우는 231.125달러 보합, 11월물 비육우는 348.125달러(+1.20)로 마감했습니다. [The Ag Center](#), [Sarnia News Today](#)
5. Certified Angus Beef는 기존 총족 소가 줄었는데도 Prime 등급 소고기를 사상 최대인 6,300만 파운드 판매했습니다. [RFD-TV](#)
6. 이번 주 현물 생우 거래는 10/22까지 본격화되지 않았고, 생산자들은 북부 최소 230달러를 기대합니다. 출하 예정 물량은 전주와 비슷합니다. [The Ag Center](#)

호주

1. 비가 내린 뒤 재입식 수요가 몰려 EYCI가 1,000¢/kg을 넘었고, 더보 경매의 어린 소는 전주보다 kg당 최대 80¢ 올랐습니다. 전국 중량 거세우 지표는 A\$4.77/kg으로 사상 최고이며, 업계 분석가(Simon Quilty)는 내년 중량 거세우가 약 20% 오른 5.70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[ABC News](#)
2. 10/23 주간 퀸즐랜드·뉴사우스웨일스 북부에 50~100mm 비가 내려 농가가 소를 붙잡으면서 소 출하는 54,254두로 7% 줄었습니다. 가공용 암소 지표는 사상 처음 400¢/kg(생체)을 넘었고, 재입식 1년생 암소는 468¢(+2.5%)입니다. [M LA 주간 시장](#)
3. 10/23 미국 수입우 시장에서 호주·뉴질랜드산 90CL 카우는 US\$335~342/cwt, 95CL은 355~362달러로 올랐습니다. 호주·뉴질랜드산 수요가 강했고 거래는 적었습니다. [USDA AMS 수입우 거래](#)
4. Rabobank는 중국의 무역 제한으로 세계 소고기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, 그 영향이 호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. [Dairy News Australia](#)
5. 10/21 퀸즐랜드 달비 경매는 비로 출하가 3,280두(-144)로 줄었고, 재입식 경량 거세우가 평균 606~607¢/kg로 40~60¢ 올랐습니다. 최상급 암소는 평균 399¢, 최고 420¢였습니다. [Beef Central](#)
6. 10/19 와가 소 경매는 4,395두(+305)가 나왔고, 재입식업체가 비육장보다 높게 사며 280~330kg 거세우가 530~618¢/kg(+24¢), 340~400kg 비육용 거세우가 522~586¢(+16¢)로 올랐습니다. 반면 트레이드 거세우·암소는 440~515¢로 9~14¢ 내렸습니다. [Beef Central](#)

뉴질랜드

1. 일본 이토햄요네큐홀딩스가 뉴질랜드 소고기 가공업체 Greenlea Group을 6.5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. 일본향 뉴질랜드 소고기 공급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. [AK&M](#)
2. 8월 뉴질랜드 적색육·부산물 수출은 8.67억 뉴질랜드달러로 전년보다 23% 늘었고, 모든 주요 시장에서 수익이 올랐습니다. [Otago Daily Times](#)
3. P2 스티어 스케줄은 북섬 985, 남섬 971 NZ¢/kg로 1년 전보다 각각 11%, 10% 높습니다. ([interest.co.nz](#))
4. 미국 수입 시장의 가공용 원료(90CL) 가격이 10/23 반등해 뉴질랜드산 소고기 수출가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. ([USDA AMS 수입우 거래](#))

남미 (브라질·우루과이·파라과이·아르헨티나)

1. 우루과이 비육 거세우 가격은 kg당 US\$6(도체)에 다시 올라서 자리를 잡았고, 도축업체들이 구매를 늘리고 있습니다. [El País Rurales, El Observador](#)
2. 브라질 비육우 시장은 출하 소가 적고 판매자가 더 높은 값을 기다리며 물량을 붙잡아, 거래가 적은 가운데 보합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(Scot Consultoria). [Globo Rural](#)
3. Cepea 비육우는 10/22 R\$380.55(+0.04%)로 10월 누적 4.46% 올랐습니다. [Cepea](#)
4. 브라질 비육우 가격은 출하 가능한 소가 적어 전국에서 보합을 유지했고, 도축 대기 일수는 5~11일입니다. 마투그로수 두술은 R\$379.43까지 올랐습니다. [Globo Rural, A Crítica](#)
5. 브라질 소고기 수출은 10월 두 번째 집계에서 첫 주보다 하루 평균 선적이 늘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[FarmNews](#)
6. Cepea 비육우 10월 평균(10/21까지)은 R\$376.33으로 1월보다 17.4%(실질), 9월보다 6.56% 높습니다. 비육우가 송아지·육성우보다 더 올라 비육장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. [Globo Rural](#)

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호주산 세이프가드(24%)는 올해 7/21 발동돼 해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(2025년 9/12, 2024년 10/28). 트레이더스처럼 발동 전에 5.3% 관세로 원료를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므로, 2027년 물량은 연초 선매입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. [조선비즈](#)
- 9월 한우 생산자물가가 전년보다 20.4% 올랐고, 호주산은 7월부터 세이프가드 관세 24%가 붙고 있습니다. 다만 원화 강세가 수입 단가 부담을 덜어 주고 있어, 수입육으로 한우 대체 수요를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. [이데일리](#)
- 미국 수입 시장의 호주·뉴질랜드산 가공용 원료(90CL·95CL) 가격이 10/23 다시 올랐습니다. 가공용 원료 오퍼는 인하보다 보합 이상을 전제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. ([USDA AMS 수입우 거래](#))
- 호주산 한국향 수출은 세이프가드 관세 24%로 6월 정점보다 45% 줄었습니다. 중국향 물량도 1월 통관을 기다리며 쌓여 있어, 1월 선적·통관분은 공급이 몰려 가격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.
- 미국산 Choice 컷아웃은 365달러대로 사흘째 내렸지만 생우·비육우 선물은 고점권(생우 231달러대)에 머물고 9월 입식도 12% 줄어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미국 생산도 줄고 있어, 구이용 부위는 큰 폭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4분기 말까지 나눠 매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주말 현물 생우가 228달러로 강해 다음 주에도 미국산 원가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
- 브라질산은 11~12월 중국 쿼터 재개로 대중국 선적이 최대 40만 톤 몰릴 수 있어 남미산 오퍼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중국 관세로 10월 수출 물량은 40% 가까이 줄었지만 단가는 올랐고, 산지가는 R\$380으로 명목 사상 최고입니다. 우루과이 거세우도 6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. 남미산 오퍼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우루과이·파라과이산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호주는 비로 소 출하가 줄고 가공용 암소 지표가 사상 처음 400¢를 넘었습니다. 다짐육·가공용 원료를 포함한 호주산 오퍼가 오를 수 있어, 4분기~1분기 물량은 일찍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. ([MLA 주간 시장](#))

한 줄 요약

호주 소 지표가 비로 일제히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일본이 호주산 매입을 늘리는 가운데 미국 컷아웃만 약세이므로, 호주산은 4분기~1분기 물량을 일찍 확보하고 미국산 구이용은 컷아웃 약세를 활용해 나눠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